

##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 교회의 역할

# Multi-cultural Society, Inter-cultural Marriage-Family: The Role of The Korean Church

이병수\*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 목 차

1. 들어가는 말 | 110
2. 다문화 가정 | 117
3. 다문화 가정 현황과 전망 | 118
4. 다문화 가정 학생현황과 교육문제 | 122
5. 다문화 가정의 애로점과 대안 | 124
  - 5.1. 애로점 | 124
  - 5.2. 대안 | 125
6. 선교적 전망 | 137
7. 맺는 말 | 139



요약

##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 교회의 역할

얼마 전(금년 3월) 외국인 근로자 모임 후 필리핀 자매를 아내와 함께 승용차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김해 상동의 집까지 태워 주었다. 집 안에는 시어머니가 발일을 하고 계셨고 그 시어머니 옆에 젊은 여자가 발일을 돕고 있어서 친 딸 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베트남 여성으로 그 시어머니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시어머니의 두 아들의 며느리 중 한명은 필리핀, 다른 한명은 베트남 여성이었다.

농협중앙회는 금년을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원년”으로 선포하고 “농촌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보았다. 10년 후 농촌 절반은 다문화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농업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있다고 보았다. 오늘날 농·어촌에는 결혼가정 10가정 중 4가정이 국제결혼이고 이 현상은 농·어촌 지역에만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용산에는 국제 이주자가 10%를 차지하고 무슬림 여성들이 사용하는 ‘부르카’ 문제도 조만간 제기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3D 직종 기피로 이민의 적극적 수용 가운데 국제이주자와 다문화 가정 증가로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7월22일)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비극적 테러사건은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고 언론 및 방송은 그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울리히 벡이 그의 책 『위험사회』에서 지적한 대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치밀한 대비가 없다면 한국도 유럽처럼 위험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가운데 담론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핵심어는 ‘톨레랑스’(Tolerance, 관용)였다. 노르웨이 사태 후 국내 한 일간지는 희생자들에게 헌화된 장미를 이렇게 묘사했다. “테러의 땅에 장미 바다...오슬로의 가슴에 톨레랑스가 피어났다”. 부일 읽기 김현정 독자위원의 ‘노르웨이에서 다문화의 길을 묻다’(8월1일)에서도 톨레랑스가 강조되었다. 최근 영국의 폭동(8월 10일) 이후 폭도에 아들 잃은 무슬림 아버지가 “슬픔 억누르고 톨레랑스 호소하다”는 기사에서도 동일하였다.

톨레랑스는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화두(話頭)이다. 모더니즘이 강조하는 보편성과 획일성 대신 포스트모더니즘이 강조하는 다름과 차이를 포괄하는

## 요약

가장 매력적인 용어이다. 이 사상에 기초한 것이 유럽의 다문화정책이다. 노르웨이 사건은 지난해 말 독일의 메르켈 총리, 금년 초 영국의 캐머런 총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다문화주의 정책 포기와 궤를 같이 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이들의 ‘다문화주의 포기’ 발언은 1970년대 그것을 처음 도입한 호주와 캐나다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유럽의 다문화주의 포기를 한국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프랑스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어떤 문명이나 민족도 다른 집단 보다 우월한 것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우수한’ 서구 문명이 ‘미개한’ 원시문화를 지배한다는 서구 우월주의의 편견을 깨뜨렸다. 그 책 『야생의 사고』는 이런 서구의 오만한 ‘환상에 대한 해체’를 선언하였다. 그는 이런 인류학적 연구의 결과로 문명의 우열을 뛰어 넘어 상대방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과 상생의 의식을 가지게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제이주자와 다문화 가정을 ‘그들’과 ‘우리들’ 하나 되게 하는 데는 ‘2%’가 부족하다. 이유는 레비스트로스의 나라 프랑스에서 최근 이런 철학에 기초한 다문화 정책을 포기하는 가운데 그들이 주장한 툴레랑스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국제이주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툴레랑스 및 다문화정책을 유지하되 그것이 가지는 피상성

을 경계하지는 것이다.

이런 다문화주의 포기는 그들이 주장하는 툴레랑스의 사상적 피상성에 기인한다. 이 피상성은 캐머런과 사르코지의 우파정권이 국익 때문에 다문화주의를 포기하는 것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정책과 툴레랑스의 전유물인 유럽 좌파는 우파의 다문화 정책 포기를 비판하지만 그것이 수사(修辭)로 그친다면 그 피상성을 피할 수 없다. 해결책은 진정성이다.

인간에 대한 진정성이다. 프랑스의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는 서양철학을 모두 ‘존재론’이라 못 박고 그것을 한 마디로 ‘주체 중심’의 철학이라고 주장했다. 이 철학은 인식의 대상으로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와 ‘다른 것’에 대한 관심과 배려 대신 그들을 자신의 욕망의 충족과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레비나스는 이 서양 철학을 ‘전체주의적 철학’, ‘전쟁의 철학,’ 그리고 ‘이기주의적 철학’이라고 단죄한다.

그가 이런 서양 철학을 비판하는 이유는 서구가 식민지 정복과 1, 2차 세계 대전이 ‘주체 중심’의 철학 즉 ‘전체주의’와 ‘전쟁의 철학’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가 시도하고자 한 것은 “천체성의 철학, 또는 전쟁의 철학에 대항해서 어떤 무엇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타자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는 평화의 철학”이었다.

## 요약

‘레비나스에 의하면 ‘주체중심’의 철학에서 생겨나는 ‘전쟁의 철학’에서 ‘평화의 철학’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자신의 ‘주체’ 중심이 아니라 ‘타자’에 중심을 둘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구심점을 ‘나’로부터 ‘다른 이’로 옮기려는 철학의 혁명적 변화의 시도이고 그의 철학에는 어떤 점에서 서구철학의 자아 중심적 인간 사상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레비나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인간의 주체성을 ‘타인을 받아들임(l'hospitalite)’ 또는 ‘타인을 대신한 삶(la sustitution)’ 등으로 정의하는 가운데 인간의 삶은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면서 타인의 관계를 통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와 책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 타자를 ‘다른 이의 얼굴(Le visage)’로 묘사한다.

이때 나타나는 ‘다른 이의 얼굴’은 단지 생물학적 물체가 아니라 자기중심적 우리를 꾸짖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고와와 과부’의 얼굴이요 ‘나그네와 이주자’의 얼굴이요 그 안에서 ‘신神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이다. 마더 테레사가 고통 받고 있는 타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타자에 중심을 두는 레비나스의 철학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고아와 과부’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이주자’와 ‘다문화가

정’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동양과 서양을 하나 되게 시도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위대성은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세계시민 정신 때문이었다. 그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야만인들(그리스인이 아닌 사람), 특히 아시아인은 ‘타고난 노예’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리스인의 편견과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한계를 뛰어 넘은 진정한 코스모폴리탄이었다.

알렉산더는 전쟁터에서 ‘야만인’들과 직접 접촉할 기회를 가지면서 그리스인이 과연 그들보다 우월한지 시험해 볼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기원전 329년 힌두쿠시를 가로질러 박트리아로 진군할 때는 대규모의 아시아인을 원정 주력군으로 충원했다. 그는 아시아 여성 룩사나와 결혼했고, 1만 명의 병사들에게도 아시아 출신 아내를 얻게 했다.

한국사회에서 국제이주자와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원초적인 것은 그들에 대한 내국인의 편견과 차별이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는 툴레랑스의 가치와 한계를 직시하면서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인간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교육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Multi-cultural Society,  
Inter-cultural Marriage-Family:  
The Role of The Korean Church*

주요어

다문화 사회, 국제결혼 및 다문화 가정, 한국교회의 역할, 포괄적 다문화 이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복지, 구심적 선교

---

\* 이병수 교수는 고신대학교와 동신대원(M.Div)을 졸업하고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조직신학 신학석사(Th. M.), 선교학 전공으로 선교학 박사(D. Miss.) 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재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Abstract

### Multi-cultural Society, Inter-cultural Marriage-Family: The Role of The Korean Church

Prof. Dr. Lee, Byung Soo (Kosin University)

Korean society today moves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resulted from a several factors: the globalization, 'Korean Dream' by the growth of Korea's economy, 'Korea Fever' by the influence of the Korean drama, movie, and entertainment stars and the young people's avoidance of 3D(Difficulty, Dirty, Danger)jobs. There is now the great influx of foreign workers and students from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Vietnam, Indonesia and Filipino. Eventually, the rate of inter-cultural marriage and multi-cultural family is rapidly growing in Korea society. However, there is two sides of 'the light' and 'the darkness'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Negatively, the Korean society and church have faced a lot of problems such as a cultural prejudice, a race discrimination, a inter-cultural marriage, an educational and poverty issue. If the Korean society does not endeavor to solve the problems it can become the "Risk Society" which Ulrich Beck predicted in his book.

Positively, Korean church today has a great opportunity to evangelize them from 'the centripetal mission' perspective which Begnt Sundkler traces through the Old Testament.

Now the Korean church looks for not only a several solutions to the problems, but also a several strategies from cultural, biblical, missiological and social welfare perspectives.

Culturally, Korean church tries to understand multi-cultural society and is ready to accept it by the cultural training based on the Bible. Biblically, it learns multi-cultural family in the story of Ruth. Ruth and Boaz story is a good model for inter-cultural marriage and multi-cultural family. Moabite woman Ruth as a foreigner with Naomi of her mother in law, battered by life's tragic blows-famine, exile, grief, loneliness, became the ancestor of the King David after Ruth had met and married Boaz.

Missiologically, many intercultural married women and men are Muslims. It is not easy for the Korean missionaries to evangelize Muslims in their own countries. However, it is a great opportunity to reach out to them in Korea.

From a social welfare perspective, many multi-cultural family are in the problems of poverty, the children care and education. The Korean church can look for the biblical solution of the problem in the story of Boaz's mercy(Hebrew. Hessed). The most

obvious examples are the practice of gleaning for the poor and the role of the kinsman-redeemer. In sum, it is the time for the Korean church to accept the evangelization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as a new mission paradigm.

**Keywords** | Multi-cultural society, Inter-cultural Marriage and Family, the Role of the Korean church, Mutual understanding of Inclusive Multi-culture, social welfare for inter-cultural Marriage and Family, The centripetal mission

## 1. 들어가는 말

국제이주자<sup>1)</sup>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의 시, 소설, 및 영화와 사례 및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복지기관, 언론·방송, NGO 및 종교단체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 #1. 시

그를 바라봅니다.

그가 고독했던 이유는 그가 우리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차별대우를 받았던 이유는 우리와 다른 그의 피부색 때문이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아파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말할 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그를 바라봅니다.

---

1) 예를 들면 결혼 이민자 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북한 새터민 가족, 외국인 유학생 및 교수 가족, 난민 및 통일교에 의한 국제결혼 가족을 포함한다.

그제야 외국인이기 이전에 그도 나와 같은 사람임을 봅니다.  
그렇게 한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당신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 허재석, <하나보다 아름다운 우리>

## #2. 소설

국제결혼의 그늘에 가려진 이 시대의 슬픈 단상을 황연중은 그의 소설<sup>2)</sup>에서 현장감 있게 다루었다. ‘국경을 허문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방송과 매체에서 훈훈하고 아름답게 다루어진 국제결혼, 특히 한국 노총각과 동남아시아의 젊은 아가씨의 만남은 약자인 외국인을 끌어안고 다문화 사회를 지향해가는 발걸음이라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따스한 포장 속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둡고 불편한 진실이 있었음을 작가는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다.

## #3. 영화

영화 “세리와 하르”는 단일민족에서 다문화로 바뀌어가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영화이다. 내용은 베트남에서 시집 온 엄마를 미워하는 ‘세리’와 필리핀 불법이민노동자 부모의 자녀로 불법 체류자 단속에 쫓기다 교통사고로 죽은 엄마를 가슴에 품고 필리핀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하르’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같은 동네의 다문화 가정의 두 소녀로 프로골퍼가 되고픈 ‘세리’(한국여자 프로골퍼 박세리 연상)와 합법적인 대한민국

2) 황연중, 『그 안에 내가 있었다』 도서출판 다솜, 2010.

시민이 되고픈 ‘하르’는 장밋빛 꿈의 실현에 설레기보다 눈앞에 놓인 가혹한 현실의 무게에 힘겨워 하는 내용을 보여준다.

#### #4. 사례: 이주 여성 및 국제 결혼자의 애로점

다음의 두 사례 중 첫째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네팔 여성이 겪은 애로점이고, 두 번째는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겪은 것이다.

#### 다문화가정 사례 1.

두루가 | 다문화가정 학부모3) : 네팔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두루가라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한다면 저는 열아홉 살에 시집와 연년생으로 스물, 스물 하나에 두 아이를 낳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생활이 시작 되었는데 생각과 달리 많이 힘들었습니다. 음식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네팔의 종교 힌두교에서는 소는 신이고 돼지는 브라만 계급이 만져서도 안 되는 동물이었는데 한국에 오니 상추에 쌈을 먹으라고 주는 것이 삼겹살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경험해보지 않고는

---

3) 국제교육포럼 주관 “다문화가정 교육정책 마련 심포지엄” 자료집 2009.5.3 pp.7-8.

모르실겁니다.

첫아이를 낳아 시어머니께서 모유가 잘 나온다고 돼지다리를 고아 주셨는데 먹지 못해 토해내고 그렇지만 무서운 시어머니 때문에 울면서, 올리면서 먹었습니다. 소고기를 먹지 못하는데 미역국에는 꼭 소고기를 넣어주셔서 이 부분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국말이 많이 서툴러 인사를 할 때에도 한국말이 정말 외우기가 힘들어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면 손바닥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적어 다니면서 손바닥에 적은 글을 보며 인사하였고, 인사말도 한 두 개가 아니어서 잘 때, 일어날 때, 어디 갈 때, 어디서 올 때, 어른들 나가시고 돌아오실 때.....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 시부모님과과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말이 잘 안되니 손짓 발짓하면서 설명하는데 보는 사람은 제가 바보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 애 정신 좀 나간 거 같다’란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쩌나 괴로운지 매일같이 울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다보니 아이들이 어릴 때는 시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직접 씻기 시다보니 제가 아이들을 제대로 씻겨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나도 엄마인데, 아이를 한 번 짬은 씻겨주고 싶은데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들께 감사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한국말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유치원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니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인 것, 아이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는 것, 피부색이 다른 것 등, 이러한 부분들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이가 울면서 집에 올 때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믿고 저도 학교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네아이들, 학교아이들, 학부모님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어려울 땐 도움도 받고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되고 아이 과제에 대해 잘 모르면 주위에 도움을 청해 도움도 받으며 많은 부분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일반 학교 다녔을 땐 너, 나 할 것 없이 아이들을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보내는데 나도 아이들을 잘 도와주지 못하고 남편도 항상 밤늦게 퇴근하는 편이어서 자녀 교육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내 아이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에 학교 보내고 나서 걱정도 많이 하였지만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남편의 반대로 학원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방과 후 수업 중 영어, 미술을 보내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가 하나씩 배워오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걱정은 부모가 평생 사는 동안, 죽고 저 세상에 가서도 한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사춘기로 들어선 것 같아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두 아이를 잘 키워 시어머니, 남편,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램입니다.



## 다문화가정 사례 2.

정유정 | 다문화가정 학부모4) : 한국

안녕하십니까? 저는 98년 파키스탄인과 결혼하여 초등학교 3학년 생과 6살 유치원생 자녀 둘을 둔 다문화가정 부모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문화’라는 문구가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다문화란 말이 여러 사람에게 친숙하게 느껴질 정도로 다방면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직접 사회에 부딪히는 일이 적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이 필요치 않았습니 다만, 유치원에 들어가고 학교에 입학하면서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이 속속 저에게 와 닿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그냥 넘겨야 할 문제도 아이의 생각을 읽어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속이 깊어진 아이들은 크면서 부모님께 조차 가슴 아파 할 일들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이 앞에서 직설적인 놀림을 많이 합니다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은 은근히 따돌림을 합니다. 가령 축구경기에 넣어 주지 않는다면 여러 놀이에 본인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 한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은근한 따돌림이 시작되면 부모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과의 원만한 사회적 친분을 형성해야 합니다.

4) 국제교육포럼 주관 “다문화가정 교육정책 마련 심포지엄” 자료집 2009.5.3. pp.9-10.

다문화가정은 형편이 대체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사도 자주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서 한 동네에서 쉽게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친구들을 잃게 해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친구는 지켜야 할 아이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아마 학년이 올라갈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방과 후 수업이나 여러 종류의 학원이 많습니다만, 모두 경제 여건이 여의치 않아 학원에 보내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밖에는 또래 친구들이 보이지 않고 여러 수업에 참여해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친구들이 하는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학과 과목은 학원에 못 가더라도 태권도 도장, 미술, 피아노, 영어 등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많으나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우울합니다. 유치원생도 원비가 있고, 시간외에는 모두 특강으로 이루어져 있어 예능 과목당 몇 만원씩 하는 걸 못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구김 없이 자라려면 공부 외에 친구들을 사귀고 친목을 통해 그들이 무한히 커 갈 수 있도록 꿈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2.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이나 입양 등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 간에 여러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 동안 혼혈아동을 부르는 명칭으로는 ‘혼혈아’, ‘코메리칸’, ‘아메리시안’, ‘아이꼬노’, ‘코시안’, 등이 사용되어져 왔다. 혼혈아동이라는 단어는 ‘우리와는 혈통이 다른’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한국인(Korean)과 아시아인(Asian)의 합성어인 ‘코시안(Kosian)’ 또는 ‘온누리안’이라는 말도 애초에 만들어진 의도와는 다르게 부정적 내용을 언론에서 다룸으로 또 다른 차별적 의미를 담게 되었다. 이러한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다문화가정(족)’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2003년,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의 제안으로 ‘다문화가정(족)’ 또는 ‘다문화가정(족) 2세’로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새터민<sup>5)</sup>도 다문화 가정에 포함된다.

이렇게 국제이주자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언어와 종교, 문화, 외모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지, 서구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이주민과 갈등 문제를 우리도 겪게 되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도 함께 늘어났다. 2005년 말 프랑스 파리의 이주민 소요사태, 2006년 하인즈 워드<sup>6)</sup> 방한,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격사건<sup>7)</sup> 등은 한국에서도 이주민 2세의 사회통합 문제를 부각시키

5) 새터민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새로운 대체용어로 탈북이나 이탈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을 뜻한다.

6) 하인즈 워드는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가 미국 흑인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는데 미식축구(NFL)에서 2006년도 그 해 미식축구경기에서 MVP가되어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7)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Virginia Tech massacre)은 미국 버지니아 주 블랙스버그

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염려와 걱정, 관심 속에서 다문화라는 말이 등장했고,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진행되었다.

### 3. 다문화 가정 현황과 전망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 군대, 국제이주자 가정 이혼 및 자녀 교육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 군대의 변화

최근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다문화 가정 출신 군입영자가 증가하면서 군인복무 규율에 명시된 軍 입영·입관선서에서 ‘민족’ 대신 ‘국민’ 으로

---

(Blacksburg)에 위치한 버지니아 공대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약칭 Virginia Tech) 캠퍼스에서 2007년 4월 16일 오전 7시 15분 사이에서 9시 45분 사이 (미국 현지시간) 벌어진 총기에 의한 살인 사건이다. 교내의 웨스트 앰블러 존스턴 기숙사(West Ambler Johnston Hall)과 노리스 홀(Norris Hall)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이 사건으로 32명이 총상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살인 사건으로 언급되고 있다. 사건의 범인은 재미 한국인 조승희로, 그는 범행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였으며 8세(만 7세) 때 미국에 이민을 간 이민 1.5세대였다. 그는 사건 당시 버지니아 공대에서 영어를 전공하는 4학년생으로 재적 중이었으며 사건 직후 자살하였다.

1차 범행 직후, 조승희는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여러 쪽의 메모(“너 때문에 이 일을 저질렀다”(You caused me to do this.), ‘부자 집 아이들(rich kids)’, ‘방탕(debauchery)’ 등)을 남겼으며, 학교관계 부처장 래리 힙커(Larry Hincker)는 “조승희는 평소 주변사람과 교류가 없는 외톨이(loner)였다”며 “학교 당국이 그와 관련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의 한국 학생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는 한국 학생들의 모임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말해 상당히 고립된 생활을 해왔음을 시사했다.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조선일보, 2011.04.17 및 경향신문2011.04.17). 군 관계자는 “군인복무 규율에 명시된 입영선서와 임관선서문 속의 ‘민족’이란 단어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아 ‘국민’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 입대자와 장교 임관자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로 시작하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했다. 하지만 그 표현이 다문화 가정의 군입영자가 증가하면서 ‘민족’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병무청은 다문화시대에 걸맞게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을 제2 국민 역으로 편성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전원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는 병역법을 개정한 바 있다. 현재 아시아계 다문화가정 출신 100여 명이 군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국제결혼의 이혼

최근의 자료(2010년)에 의하면 국제결혼 업체의 ‘묻지 마 중매’로 3쌍이 결혼할 때 1쌍은 이혼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남성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 여성 위장 결혼 후 가출이 많아지면서 피해 남성의 상담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혼 상담 36%가 남자라고 한다. 폭력을 휘두르거나 정신 병력을 속인 한국 남성, 울고 있는 외국 여성. 국제결혼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유형을 떠올린다. 진정성 없는 국제결혼의 피해자는 외국 여성이 많았다. 국제결혼이 흔치 않을 때는 외국 여성의 인권 침해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남성의 피해도 늘고 있다. 2010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이혼 상담 건수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7.2%에서 2009년 36.1%로 늘었다. 상담 남성 중 41.4%가 이혼 상담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꼽았다. 중대한 사유로는

생활 방식의 차이(33.7%)가 가장 많았다. 18.4%는 결혼 의도를 속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돈이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가출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런 통계를 접할 때 이제 객관적, 다층적 및 종합적 접근과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 배경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국제 이주자 125만 명, 결혼하는 대한민국 열 쌍 중 한 쌍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있고 농어촌의 경우는 10쌍 중 4쌍이 국제 결혼가정이라고 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국제화, 한국인의 3D 직종 기피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입, 한국의 경제적 위상 향상과 한류의 열풍가운데 1990년 대 및 2000년 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국제결혼은 개인적 선택의 차원을 넘어 저출산 및 고령화 증가의 인구현상, 송출국과 유입국간의 정치적 역학관계, 결혼중개업체의 상업성 등 다양한 환경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주변에서 국제 결혼한 친·인척을 가끔 접할 수 있다. 필자가 봉사하고 있는 김해 중앙교회 외국인 근로자 부서에서도 그런 가정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얼마 전(금년 3월) 저녁 예배 후 필리핀 자매를 아내와 함께 승용차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김해 상동의 집까지 태워 주었다. 집 안에는 시어머니가 발일을 하고 계셨고 그 시어머니 옆에 젊은 여자가 발일을 돕고 있어서 친 딸 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베트남 여성으로 그 시어머니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시어머니의 두 아들의 며느리 중 한명은 필리핀, 다른 한명은 베트남 여성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농어촌 남자 40%가 외국여성과 결혼한다는 단적인 예를 여기서 보게 되었던 것이다.

전국농협중앙회는 2011년을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원년”으로 선포했다<sup>8)</sup>.

10년 후 농촌 절반은 다문화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농업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있다고 보았다. 그 자료에 의하면 “농촌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다문화가정의 증가를 꼽아왔다”고 했다. 이 현상이 비단 농어촌 지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 이유는 다음의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 ▶ 출산율 저하

출산율 저하로 국제 이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구학적 구조이다. 최근 언론<sup>9)</sup> 들은 “한국, 출산율 꼴찌... 40년 뒤 인구 420만 명 줄어든다”고 보도 했다<sup>10)</sup>. 유엔이 발표한 ‘2009 인구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평균 출산율이 2.54명인데 한국은 1.22명이고 한국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초고속 고령화로 인해 이 현상이 농어촌 지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8) 《동아일보 2011-02-09》.

9) 조선일보 2009년 11월19일 목요일 A2 면과 중앙일보 2009년 11월19일 목요일 종합3면 참고, “한국, 출산율 꼴찌... 40년 뒤 인구 420만 명 줄어든다.” 기사 참고. 최근 유엔이 발표한 ‘2009 인구보고서’에 의하면 세계평균 출산율이 2.54명인데 한국은 1.22명. 한국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18일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09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186개국)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나타났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1명)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적었다. 이 수치는 UNFPA가 과거 5년의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것이다. 2008년 통계청에서 집계한 국내 출산율 1.19명을 대입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된다. 출산율은 선진국 1.64명, 개발도상국 2.7명, 저개발국 4.29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낮았다.

10) 《조선일보 2009년 11월19일자, 중앙일보 2009-11-19》.

### ▶ 이민 수용

이민의 적극적 수용을 강조하는 기사도 자주 언급된다. 최근 한 언론<sup>11)</sup>에 의하면 “성공 코리아를 이어갈 3대 필수조건은 개방적 이민 정책, 내수확대, 혁신”으로 보았다. 미국월가 이코노미스트 골드스틴은 “한국은 세계적 금융 위기에 가장 현명하게 대처해 왔다. 앞으로도 이 같은 성공을 이어가자면 이노베이션(혁신), 개방적 이민정책, 내수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수시장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선 혁신을 일으키는 한편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수준 높은 외국인재를 끌어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4. 다문화가정 학생현황과 교육문제<sup>12)</sup>

1997년 국적법 개정 이후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며,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농어촌 지역에서 국제결혼이 붐을 일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이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했다.

2006년 3월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7,998명으로, 2005년(6,121명)에 비해 30.6%나 늘어났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11) 《중앙일보 2009-11-20 E2면》

12) 다음의 자료집들이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 국제교육포럼 주관 “다문화가정 교육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2009.5.3.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다문화교육센터 및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연구” 자료집 참조 2006.12.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sup>13)</sup> 부산의 유치원·초·중·고 재학현황은 1,234명으로 전년(922명)에 비해 다문화가정의 취학율이 매년 약 30% 이상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이 전라남북도 및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 안산지역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각 대도시 특히 울산, 창원, 거제도 및 공단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 가운데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문제는 위기였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력은 모든 학생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고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중도 포기율은 초등학교 15.4%, 중학교 39.7%, 고등학교 69.6% 등 전체적으로 24.5%이다. 상급학교에 올라갈수록 포기율은 더 높아갔다<sup>14)</sup>. 다문화 교육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과제’로서, 이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들의 교육 소외 해소를 위한 진단과 처방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5)</sup>. 따라서 각 도시 마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역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다.

13) 하승희, “다문화 가정 교육 학생현황과 교육정책” 참조 국제교육포럼 주관 “다문화가정 교육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2009.5.3.

14) 《조선일보 2008-10-25》

15)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다문화교육센터 및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연구” 자료집 참조 2006. p.7.

## 5. 다문화 가정의 애로점과 대안

### 5.1. 애로점

앞에서 언급한 사례와 여러 가지 현황과 통계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애로점은 언어 소통, 음식, 종교 및 문화적 어려움, 외국인에 대한 편견 및 자녀들의 따돌림, 자녀 교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시부모와의 갈등 등이다. 그 외 이주 여성의 남편과의 갈등 특히 한국 남성의 가부장적 문화 및 성격차이, 남녀의 나이 차이(‘띠 동갑’ 및 심지어 20세 이상 차이- 이주 여성은 20대초인 반면 한국 남성은 40대 중·후반의 경우-)에서 생기는 성성 문제, 남성의 음주 및 가정 폭력, 친정과의 긴밀한 대화의 어려움 및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다. 그리고 한국 농어촌 총각의 증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및 한류열풍에 의한 이주여성의 한국 선호 현상, 그리고 결혼중개업체의 상업성에 의한 ‘묻지마 중개 및 결혼’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1)가족 해체의 위기, 2)빈곤의 악순환, 3)교육의 기회 상실이다. 가족의 해체 및 빈곤의 악순환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이 사회와 학교에서 겪는 편견 가운데 학교생활의 부적응이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문화 가정 그들 자신의 문제도 많이 있다. 그리고 건강하고 모범적인 다문화 가정도 많고 이런 가정을 돕는 국가, 지방정부 및 교육기관의 헌신적 교사, 복지기관, NGO 및 종교단체들도 많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난제들도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날 서구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럽에서 겪는 국제이주자 청년들의 실업 및 인종차별과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국제 이주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위험에 직면한 서구 국가들 가운데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2010년 10월 16일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독일식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금년 2월5일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가 “서로 다른 문화가 독립해서 공존하는 영국식의 다문화주의는 영국의 가치 안에서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2월 10일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공언했다. 사르코지의 ‘다문화주의 정책 실패’ 발언은 유럽 정상 중에서 세 번째다. 독일의 메르켈, 영국의 캐머런, 그리고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의 ‘다문화주의 실패’ 발언은 1970년대 다문화주의를 처음 도입한 호주와 캐나다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위기를 우리 사회가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가난을 극복하고 그들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역동적인 사회원이 되도록 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 5.2. 대안

**5.2.1 이론적 대안:** 앞에서 언급한 여러 방법이나 제시하는 관점도 유익하지만 좀 더 근본적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철학적, 선교학적 및 신학적 단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 ▶ 다문화 교육의 철학적 단상: 레비나스의 ‘다른 이의 얼굴’<sup>16)</sup>

16) 손봉호 『현대정신과 기독교적 지성』성광문화사 pp. 152-167.

프랑스의 유대인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서양철학을 모두 ‘존재론’이라 못 박고 그것을 한 마디로 ‘주체 중심’의 철학이라고 주장했다. 이 철학은 인식의 대상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와 ‘다른 것’에 대한 관심과 배려 대신 그들을 자신의 욕망(?)의 충족과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레비나스는 이 철학을 ‘전체주의적 철학’, ‘전쟁의 철학,’ 그리고 ‘이기주의적 철학’이라고 단죄한다. 이런 주체 중심적 철학은 서구의 오래된 전통 즉 그리스 철학의 영향 이후 서구의 철학 예를 들면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의 “내가 곧 세계(소우주)다”라고 생각하는 구조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다.

그가 이런 서양 철학을 비판하는 이유는 서구가 식민지 정복과 1, 2차 세계 대전이 ‘주체 중심’의 철학 즉 ‘전체주의’와 ‘전쟁의 철학’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가 시도하고자 한 것은 “천체성의 철학, 또는 전쟁의 철학에 대해해서 어떤 무엇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타자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는 평화의 철학”이었다.<sup>18)</sup>

레비나스에 의하면 ‘주체중심’의 철학에서 생겨나는 ‘전쟁의 철학’에서 ‘평화의 철학’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자신의 ‘주체’ 중심이 아니라 ‘타자’에 중심을 둘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구심점을 ‘나’로부터 ‘다른 이’로 옮기려는 철학의 혁명적 변화의 시도이고 그의 철학에는 어떤 점에서 서구철학의 자아 중심적 인간 사상의 모습을 잘 지적하고 있다.

레비나스는<sup>19)</sup>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인간의 주체성을 ‘타인을 받아들임

17) 그의 책 『Totalite et Infini (전체성과 무한)』 참조.

18)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pp.6-7. 레비나스에 대한 참고도서로 콜린 데이비스(Colin David) 지음 김성호 옮김 『엠마누엘 레비나스-타자를 향한 욕망(Emmanuel LEVINAS An Introduction)』 다산 글방, 2001. 강영안 지음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김연숙 지음, 『타자 윤리학』 인간사랑.

(l'hospitalite)' 또는 '타인을 대신한 삶(la sustitution)' 등으로 정의하는 가운데 인간의 삶은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면서도 이 세계는 타인의 관계를 통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와 책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 타자를 '다른 이의 얼굴(Le visage)'로 묘사한다. 그는 주장하기를 모든 "다른 이"는 마치 데카르트(Descartes)에 있어서 신(神)과 같이 '다른 이'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때 나타나는 '다른 이의 얼굴'은 단지 생물학적 물체가 아니라 자기중심적 우리를 꾸짖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고아와 과부'의 얼굴이요 '나그네와 이주자'의 얼굴이요 그 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이다. 마더 테레사(Mother Terasa)가 고통 받고 있는 타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다. 진정한 주체성은 타인의 존재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고 이 타자에 중심을 두는 레비나스의 철학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소외된 '고아와 과부'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이주자'와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 선교적 단상

알리샤 이완스카(Alicja Iwanska)<sup>20</sup>는 미국 서북부 거주민들의 삶을 분석하면서 타 문화권에 대하여 선교사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서북부 거주민들은 이 세계를 세 개의 경험 권으로 나눈다. 첫째는 '주변상황'이다. 여기에는 자연, 기후, 통치조직, 스포츠 그리고 그들이 그이 조정할 수 없는 사건들이 속한다. 두 번째 영역은 기계류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작업이나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포함된다. 도구는 수리가 가능하고 필요할 때까지 간직하지만 그 후에는 버리는 물건이

19) 상계서 p. 120

20) 폴허버트 지음 김동화 이종도 이현모 정홍오 옮김 『선교와 문화인류학』 조이선교회 출판부 1996 pp. 125-126

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람’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관계를 형성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돌보아는 주는 것은 사람들이다.

이완스키의 연구에서 중요한 발견은 그녀가 연구한 집단은 모든 사람을 ‘사람의 영역’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 즉 미국 인디언 같은 사람들을 ‘주변상황’, 멕시코 이민자들과 같은 노동자는 ‘기계류’로 본다. 이 미국인들이 진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친척과 친구들뿐이라고 한다.

이것을 오늘날 선교사역에 적용한다면 선교사는 낯선 사람이나 새로운 문화를 주변 환경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비서나 간호원, 하인들처럼 선교사들을 위해 일해 주는 사람들을 도구로 보는 경향도 있다. 그럴 리가 없지만 이 발견에서 나타났듯이 혹시 한국사회와 교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계류로 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들에 대한 태도와 선교에 있어야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이주자들과 다문화 가정을 “사람으로 즉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장애물을 헐어야 한다.”

### ▶ 신학적 단상: 룻기의 가르침-다문화 가정, 성경적 단상 및 교회 실천 방안

룻기는 국제이주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좋은 성경적 기초가 된다. 이방 여인 룻이 참다운 가정의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된 것도 보아스와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이전의 룻의 삶은 전 남편의 사망과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의 이주와 정착의 과정 가운데 가난과 고통의 삶이었다. 보아스와 재혼이라는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행복한 가정과 함께 다윗의 증조할머니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방 여인 룻의 삶과 보아스의 인애와 자비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오늘날 다문화 가정의 성경적 정착 모델

즉 “룻·보아스 프로젝트!”로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룻기<sup>21)</sup>는 사사시대에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정적 모습과는 전혀 대조적인 내용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했던 것과는 달리, 이방 여인 룻은 자기 백성 모압 민족들이 섬겼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가정<sup>22)</sup>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이 원리와 실천 방안이 오늘 다문화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믿음에 기초한 인애와 자비 대신 ‘플레랑스(Tolerance, 관용)’에 기초한 서구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 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언젠가 동일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룻기는 다문화 가정의 성경적 정착 모델로 신학적, 선교적 및 실천방안으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믿음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인애와 자비에 기초한 룻과 보아스와 같은 다문화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데 교회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다문화 가정 선교정책은 룻과 보아스 같은 성경적 모범적 가정과 다문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한국 교회와 사회가 서구 교회와 사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작은 복음화이다.

21) 앤드류 E. 힐(Andrew E. Hill)·존 H. 월튼(John H. Walton) 공저, 유선명·정종성 공역 『구약개론』 은성 1994. pp. 231-33.

22) 가정의 중요성. 이 책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가정을 보존했으며, 그러한 가정에서 다윗 왕이 나왔다는 것이다. Hubbard, Robert L. The Book of Ruth. Grand Rapids: Eerdmans, 1988.

## 5.2.2. 실천적 대안<sup>23)</sup>

### 5.2.2.1. 복음전파

시택과 남편 그리고 모국의 친정 가족 복음화(대부분 이주자들이 이슬람, 힌두교 및 불교들이다)가 해결책의 대안 중의 하나이다. 룯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 인도와 룯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 때문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신앙 고백 때문이었다. 따라서 룯이 받은 믿음의 축복을 이주 여성이 동일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나오미 처럼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전도해야 할 이유는 ▲국제결혼 여성이 현실적 이유로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타종교 인이고 ▲그들이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및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의 포섭 대상임을 고려할 때 그들과 함께 남편 및 자녀의 전도가 우선적이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의 부부가운데 통일교도들이 많다. 통일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포교활동이 가장 적극적이다<sup>24)</sup>.

### 5.2.2.2. 가정 회복

사사시대의 어두운 가정의 몰락에서 보석 같이 빛나는 룯과 보아스의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출생(마 1:5 “보아스는 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하는 것처럼 다문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방안이다. 또한 모압 나라 이방 여인

23) 울산교회(담임목사 정근두)가 좋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회의 실천적 및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참고 생명나무 2011.5. 특집 다문화사회, 다문화 가정 “브라보 마이 패밀러: 다문화가정사역을 시작하는 교회를 위하여“ pp.26-29

24) 통일교 “평화대사” 월간 2011년 5월2일자 ‘다문화 자녀 미래한국의 희망이다.’



룻을 아내로 맞이했던 보아스의 어머니도 이방여인이요 기생이었던 라합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다문화 가정에 매우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마 1: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 “믿음의 시어머니 및 친정 모 되어주기”

나오미와 룻의 관계처럼 좋은 고부와의 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룻에게 나오미의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이 본이 되었던 것처럼 룻 또한 시어머니에 대한 섬김과 순종이 있었다. 이런 좋은 고부관계를 이루기 위해 교회 내 권사님들이 믿음의 시어머니 및 친정 모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룻은 인종과 국가 간의 서로 다른 문화를 초월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고부관계를 보여준다.

▶ 좋은 남편 및 아버지

룻과 보아스의 성경적 가정 정착 방안으로 보아스와 같은 “좋은 남편·아버지 운동”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한국남성들에게 ‘아버지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아버지의 역할 제시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전문 사역자 훈련 및 육성이 필요한데 그 중 이주 여성 및 자녀 상담 사역자가 꼭 필요하다.

▶ 자녀 교육 도우미로 대학생 및 청년들을 통한 멘토링 제도 도입도 가능하다.

### 5.2.2.3. 사회 복지 안전망 확보 방안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무를 자’ 개념에 기초하여 이주 여성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해 교회는 그들에게 경제적 자활 방안 교육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도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력의 격차 가운데 뒤처지고, 방치되고 심지어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sup>25)</sup>는 아이들이 많기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전문 사역자 훈련(상담사)으로 다문화 가정 심방자 및 상담 팀과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도우미 특히 대학생 및 청년들을 통한 멘토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정의 교육복지카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카드로 정부교육시설 무료 이용, 방과 후 수업도 몇 개 선택하여 무료수업도 받고 교육복지카드 시업에 참여한 미술, 음악, 체육학원에서 할인도 받고, 문화원교육이나, 체육시설에도 가족전원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교육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 위탁 입양도 필요하다. 부산 영도 청학동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그중에 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엄마는 몽골인, 아버지는 한국인이다. 엄마는 몽골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었다. 남편은 지금 암 투병중이다. 생활도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의 암 투병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학구열이 뜨거웠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퇴임한 기독교인 초등학교 교장 선생 부부가 그 학생을 위탁 입양하였다.

25)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연구 자료집 참조 2006. p.7. 서울대학교 교육융합연구원 다문화교육센터 및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 5.2.2.4.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이중 문화교류의 국제인재 육성

첫째, 많은 다문화 가정자녀들이 한국에서 정체성 혼돈, 차별과 가난 및 학력 포기로 인한 이들의 자학적, 반사회적 행동들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그들의 정체성이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국내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부모 출신 국가 자녀라는 사실 인식 시켜주어야 한다.

셋째, 이것을 위해서 내국인들이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엄마에게 모국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도록 장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세워

- a. 다수의 국가별 및 직업별 대안학교를 만들고, 학교에서 특기 적성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학력 콤플렉스를 극복하도록 돕고,
- b. 대안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부모가 교사 및 상담사로 일할 기회 제공하여 다문화 가정의 갈등문제를 해결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 c. 다문화가정 자녀는 미래 한국과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로 육성하여 다문화 가정의 부모 나라, 대한민국 및 국제사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단체와 연합해서 돕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은 미래의 정책이 아니라 현재 가장 시급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 5.2.2.5. 안디옥 교회 본보기

안디옥 교회는<sup>26)</sup>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각처로 흩어진 성도들 중에서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에게 전도한 가운데 생긴 교회였다(행11:19-26). 어떤 점에서 안디옥은 첫 이방인 교회였다고 할 수 있다. 안디옥은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중의 하나였다.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요점은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통해 안디옥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첫째, 바나바는 구브르(오늘날 *Cyprus*, 키프로스는 지금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쪽은 터키 지배, 남쪽은 그리스 지배) 태생으로 레위 사람으로 유대인이다(행4:36). 둘째, 니게르(‘검은’)라 하는 시므온(히브리 이름)인데 그는 아프리카 흑인이었다. 셋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으로 오늘날 리비아 지역이다. 넷째, 마나엔이었는데 그는 헬라어로 분봉 왕 헤롯, 즉 헤롯 대제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으로 불렸다. 다섯째, 사울로서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오늘날 터키). 그 당시 다소는 세계 3대 대학중의 하나였다(아텐, 알렉산드리아, 다소 대학).

그러므로 이 다섯 사람은 안디옥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상징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지에 보내기 전에 다양한 문화경험을 하게 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면 문화적 다양성을 배우고

26) F. F. Bruce 『The Book of The Acts』Eerdmans 1981. pp.259-261 참조

경험할 필요가 점점증하는 시대에 처해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국제이주자들과 다문화 가정을 접할 수 있고 세계가 국제화되면서 이런 준비가 더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정착하기 위해 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통합적 다문화 정책도 필요하지만 교회들이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배우려는 다문화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안디옥교회는 좋은 다문화 교육 및 선교의 모델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배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문화를 비교 연구하여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문화를 배워 소극적으로 문화충격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문화적응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문화 이해를 위해 문화 인류학은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를 강조한다. 문화상대주의란 자문화 중심주의<sup>27)</sup>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의 입장 즉 그 문화가 생겨난 특수한 사회적 상황이나 배경,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그 맥락에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8)</sup>. 그러나 이런 다른 문화 이해의 방법으로서 문화상대주의가 곧 도덕적, 윤리적 상대주의나 가치관의 혼란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인류학은 문화상대주의 입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갖게 한다. 이 문화의 유연성이 다문화 시대에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유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고자 하기

27) "자문화 중심주의란 단지 자신의 문화에 우월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른 문화 사람에게 강요하는 태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성찰이나 비판 없이 이를 당연시 하는 태도나 자신의 문화의 여러 특질들의 존재에 대해 무관심을 공유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국문화인류학회 지음 『처음만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28) 한상복·이광웅·김광욱지음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보아스(Franz Boas 1858-1942)부분 참조 47-48.

때문이다. 초대교회가 헨리 채드윅은 사도 바울선교의 성공 요인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다방면에 걸친 고도의 능력들과 그가 상대하는 대중들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었던 적응성”<sup>29)</sup> 혹은 유연성(Flexibility)으로 보았다. 사도바울은 이런 유연성이 카멜레온처럼 변색하는 기회주의자<sup>30)</sup>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고전 9:22).

#### 5.2.2.6. 실제 사례

- ▶ 교회는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에 민감해야 한다. 많은 다문화 가정과 교회가 국가 및 지자체 및 교육기관의 복지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 지역 교회에서 선교지 방문을 위한 단기 선교 시 해당 다문화 가정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는 선교도 가능하다. 좋은 모델 중의 하나가 울산교회이다.
- ▶ 다문화가정 가족 및 자녀들을 위한 의료봉사, 체육대회 및 페스티벌(음식, 의상, 음악 및 예술)도 생각할 수 있다.
- ▶ 다문화 가정을 위해 교회가 연합해서 그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는

29) 헨리 채드윅 서영일역 『초대교회사』 기독교문서선교회 p. 23

30) 사도바울은 문화에 대한 유연성을 인정하지만 복음에 대한 그의 엄격성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강조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10)

유명인 초청도 가능하다. 박칼린<sup>31)</sup>(아버지는 미국인 어머니는 리투아니아계 백인의 딸로 서양음악 및 동양음악을 통해 음악인으로 활동), 인순이 및 하인스 워드 등.

- ▶ 협력사역<sup>32)</sup>: 지역기관, 예를 들면 학교, 구청, 복지관, 종교단체, NGO, 의료기관, 방송 및 기업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 6. 선교적 전망

순드클러<sup>33)</sup>(Bengt Sundkler)는 예수님과 이방인(Jesus et les Paiens)이라는 논문에서 성경적 선교신학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sup>34)</sup>. 신약에서만 선교가 강조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선교적 기초들이 있었음을 강조하는 가운데 순드클러는 신약의 선교가 원심적(遠心的, centrifugal) 선교라고 한다면 구약의 선교는 구심적(求心的, centripetal) 선교였음을 지적하면서 구약에서도 선교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원심적 선교란 신약시대

31) 박칼린은 미국 유학생이었던 한국인 아버지와 리투아니아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다. 칼린은 세 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8년간 부산에서 살았다. 한국무용을 배웠던 큰언니 킴벌리, 개나리합창단원이었던 작은언니 켈리, 성악을 전공했던 어머니 아이렌 밑에서 첼로와 피아노를 배웠다.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서 공부하던 칼린은 1983년 귀국하여 경남여고 1학년에 편입했다. 그녀는 예술방면에는 관심이 많았고 한국음악 대금과 가야금도 배웠다. 그러나 고교생활 1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첼로가 전공이었던 그녀는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 지원했다. 입학시험에서 박칼린은 새타령을 불렀다고 한다. 4년간 수학 후, 돌연 귀국하여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악작곡과에 들어갔다.

32) “다문화 교육 각개 약진 이제는 그만!” 동아일보 2011-02-11

33) 남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했고 옹살라 대학의 선교학 교수

34) 베르카일(J. Verkuyl), 『현대선교신학』,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1, 59

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밖으로 즉 해외로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구심적 선교란 이방인들이 직접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선교를 뜻하는 것이다<sup>35)</sup>.

조나단 루이스(Jonathan Lewis)<sup>36)</sup>는 순드클러가 묘사했던 “구심력”을 “흡인력”으로 묘사하고, “원심력”을 “팽창력”의 두 가지 힘으로 묘사한다. 이 흡인력은 선교의 ‘오는’ 구조로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 증거 때문에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졌던 여러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기록하는데, 그 중에는 모압 여인 룻과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 등”과 신약시대에 “오순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이다.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이 두 역동적인 힘은 오늘날에도 작용한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와 안정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를 봄으로써 기독교 국가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또 그 곳을 가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는 회중들에게 사람들이 모인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경건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자질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가간다.”

만약 이러한 용어를 국제이주자와 다문화 가정에 적용한다면 ‘구심적’ 및 ‘흡인력’ 선교라 할 수 있다. 효율성 차원에서 비교해 볼 때 원심적 선교는 많은 시간, 자원과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구심적 선교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자원과 인력을 통해서도 선교적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창의적 접근 지역’ 예를 들면 이슬람권 및 분쟁지역에는 의료선교 및 비즈니스 선교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

35) Blauw, Johannes,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A survey of the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London: Lutterworth, 1963. p.38-41.

36) 랄프 윈터, 스티븐 호돈, 한철호 공동편저 정옥배, 변창욱 김동화, 이현모 옮김 『퍼스펙티브스 1권』 예수 전도단, 2010. p.172-173. 참조.



자연스럽게 유입해 들어오는 국제 이주자들의 종교가 대부분 이슬람, 힌두교 및 불교임을 감안할 때 그들을 위한 구심적 선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다.

국제이주자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환대(歡待)로서의 선교’도 생각 할 수 있다. 구약학자 모티머 아리아스(Mortimer Arias)는 “환대에 의한 구심적 선교 혹은 복음전도(Centripetal Mission or Evangelism by Hospitality)”를 주장한 적이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교회가 국제 이주자 및 다문화 가정을 단순히 선교의 대상 즉 하나의 객체로 생각하기보다 그들을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환대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선교이다.

## 7. 맺는 말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그의 책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의 위대성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개방성’에 두었다<sup>37)</sup>. 그 개방성 때문에 로마가 가장 위대한 제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이 진정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개방성이 잘 나타나야 하는 곳이 국제 이주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열린 자세와 태도이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k Obama)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였다. 아프리카 케냐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미국 캔자스 출신 백인 어머니 가운데 출생했다. 그의 어머니는 흑인 아버지와 이혼 한 뒤 인도네시아 남자와 재혼했고 의붓 아버지를 따라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의붓 아버지의 인도네시아 여동생은 중국계 캐나다인과 결혼했다.

37)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pp. 278-279  
한길사 서울 2002

그래서 오바마는 “우리 가족이 다 모이면 유엔 같을 것”이라 했다<sup>38)</sup>.

어머니가 인도네시아의 붓 아버지와 이혼 한 뒤 오바마는 외조부모들이 살고 있는 하와이로 보내졌다. 거기서 그는 백인들의 인종차별 가운데 심지어 ‘깜둥이’라는 말도 들으면서 상처 많은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sup>39)</sup>. 하지만 그는 외할머니의 교육의 힘으로 오늘의 그가 되었다고 한다. 교육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육의 힘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중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이 교육의 힘을 다문화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 선교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익하다.

오늘 날,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규모에서 세계 13위, 인구 5천 만 명 이상에 개인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국가는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한국이라고 한다. 한국은 자동차·선박·전자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특허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규모의 선진국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 민족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품격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문화 사회 및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측면으로 다문화 사회와 가정이 직면한 문제들을 한국사회와 교회가 소홀히 할 때 서구사회가 오늘날 직면한 문제들을 동일하게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현재 피부색 편견, 빈곤과 교육 격차의 악순환으로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들이 청년 연령에 도달해서 실업 및 그 동안 겪었던 차별로 분노와 적개심 가운데 사회 불만이 고조되어 우리에게 무서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올리히 벡 (Ulrich Beck)의 지적대로 한국사회가 ‘위험 사회’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40)</sup>. 그는 그의 책

38) 중앙일보 2009 11월 17일 종합 3면

21) Newsweek 2008년 5월

40) 독일의 사회학자 올리히 벡 (Ulrich Beck)은 현대사회가 직면하는 ‘예측’하지 못한 위협을 ‘위험’이라 불렀다. 1986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위험사회』(홍성태 옮김, 새물결) 참조.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위험은 발생하고 난 후에야 가시화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후회의 반복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 한국사회는 최근 일본의 쓰나미 사태 이후 원전의 위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주장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정의 문제들을 한국사회와 교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긍정적 측면으로 이들이 다양한 문화와 언어 그리고 인구 증가와 함께 가져다 줄 노동력은 한국여성의 출산율 저하로 치닫는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 할 수 있다. 나아가 다문화 가정의 부모 나라와 대한민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국제적 인재로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많은 한국 선교사의 자녀들이 본국과 선교지의 이중문화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과 유사한데 한국교회도 선교사의 자녀들의 이중문화 경험을 활용하여 그들을 국제사회의 귀한 인재로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 이주자와 그의 자녀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보편적 인류에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진정 다문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세계 시민정신이다.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동양과 서양을 하나 되게 하고자 시도했던 알렉산더(BC 356-323) 대왕의 위대성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세계시민 정신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의 위대한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야만인들(그리스인이 아닌 사람), 특히 아시아인은 ‘타고난 노예’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리스인의 편견과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한계를 뛰어넘은 세계인이었다.

알렉산더는 전쟁터 등의 장소에서 ‘야만인’들과 직접 접촉할 기회를 가지면서 그리스인이 과연 그들보다 우월한지 시험해 볼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원전 329년 힌두쿠시를 가로질러 박트리아로 진군할 때는 대규모의 아시아인을 원정 주력군으로 총원했다. 그는 아시아 여성 룩사나와 결혼했고, 1만 명의 병사들에게도 아시아 출신 아내를 얻게 했다.

넷째, 앞에서 언급한 구심적 선교의 효율성 이유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위상과 한류의 열풍 가운데 많은 국제이주자들이 한국사회로 유입해 들어오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국제이주자들은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 한국전쟁의 폐허 및 가난 그리고 군부독재 속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것에 놀라고 부러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 때 동일한 처지에 놓여있었던 많은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에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국제이주자 및 다문화 가정은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유는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에 수용적일 수 있고 그것이 복음전파에 좋은 접착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가의 국제이주자들이 그들을 지배했던 서구의 백인사회가 아니어서 한국에 대한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사회는 이런 유사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앞 선 선배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독일에 간호사 및 광부로, 미국사회에 선진문화 및 경제적 이유로 방문해서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한국에 돌아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한국사회, 교회 및 세계에 기여한 것처럼 한국에 방문한 국제이주자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간론과 교회론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며 믿음 안에서의 “한 가족”<sup>41)</sup>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41) 엡 2: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God's household)이라” 고전 12: 13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엡 4: 4-6절 참조. 존 스토틀(John Stott)는 교회론의 중요한 서신서인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 보았다. 존 스토틀 『하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sup>42)</sup>는 어떤 문명이나 민족도 다른 집단 보다 우월한 것이 없다고 주장함으로, ‘우수한’ 서구 문명이 ‘미개한’ 원시문화를 지배한다는 서구 우월주의의 편견을 깨뜨렸다. 그 책은 이런 서구의 오만한 ‘환상에 대한 해체’를 선언한 책이다. 그는 이런 인류학적 연구의 결과로 문명의 우열을 뛰어 넘어 상대방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과 상생의 의식을 가지게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제이주자와 다문화 가정을 ‘그들’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는 ‘2%’가 부족하다.

이유는 레비스트로스의 나라 프랑스에서 최근 이런 철학에 기초한 다문화 정책을 포기하는 가운데 그들이 주장한 톨레랑스(Tolerance, 관용)의 한계<sup>43)</sup>

---

님의 새로운 사회』아가페 출판사 1986.

42)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 안정남 옮김 『야생의 사고 La Pensee Sauvage』한길사 1996

43)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되는 본격적인 톨레랑스 비판서이다. 관용의 허구성을 웬디 브라운은 그의 책 『관용-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갈무리 펴냄)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관용이란 말에 속지 말라, 그 속에 정치·폭력 숨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 교수 웬디 브라운 교수는 관용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를 경계한다. 그는 관용이 ‘자유’나 ‘평등’의 동의어가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관용이란 이름 뒤에 숨은 정치적인 계산들과 헤게모니 투쟁, 심지어 그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의 실태를 낱알이 고발한다. 그는 최근 20년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예로 들며, 이런 ‘관용의 폭력’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지적한다. 관용은 이러한 국가나 사회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논리로 이용되고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말한다.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등 사회적 문제를 단지 관용이 부족한 개인의 탓으로만 돌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정치 논쟁을 피하고, 소수자들을 배려 받아야 할 수동적 위치로만 몰아가면서 이들이 정치 세력화되는 것도 막는다. 나아가 브라운 교수는 책의 부제로 붙였듯 이런 식으로 관용이 현대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이 될 수 있음도 지적한다. 관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사실상 소수자를 포함한 국민의 권리 보장과 계층 간의 소통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교묘하게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기득권에 대한 도전 역시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브라운 교수는 관용이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전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이 중동 국가를 상대로 벌인 수많은 전쟁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관용의 논리가 적용됐다. 미국은 이슬람국가나 후진국의 문명은 불관용적이기 때문에 서구 선진 국가의 관용적인 문명이 이들을 처단하고 민중

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7월22일)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비극적 테러사건은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고 언론 및 방송은 그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핵심어는 ‘톨레랑스’(Tolerance, 관용)였다. 노르웨이 사태 후 국내 한 일간지는 희생자들에게 헌화된 장미를 이렇게 묘사했다. “테리의 땅에 장미 바다...오슬로의 가슴에 톨레랑스가 피어났다”. 부일 읽기 김현정 독자위원의 ‘노르웨이에서 다문화의 길을 묻다’(8월1일)에서도 톨레랑스가 강조되었다. 최근 영국의 폭동(8월 10일)이후 폭도에 아들 잃은 무슬림 아버지가 “슬픔 억누르고 톨레랑스 호소하다”는 기사에서도 동일하였다.

톨레랑스는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화두(話頭)이다. 모더니즘이 강조하는 보편성과 획일성 대신 포스트모더니즘이 강조하는 다름과 차이를 포괄하는 가장 매력적인 용어이다. 이 사상에 기초한 것이 유럽의 다문화정책이다. 노르웨이 사건은 지난해 말 독일의 메르켈 총리, 금년 초 영국의 캐머런 총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다문화주의 정책 포기와 궤를 같이 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이들의 ‘다문화주의 포기’ 발언은 1970년대 그것을 처음으로 도입한 호주와 캐나다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유럽의 다문화주의 포기를 한국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국제이주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톨레랑스 및 다문화정책을 유지하되 그것이 가지는 피상성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이런 다문화주의 포기는 그들이 주장하는 톨레랑스의 사상적 피상성에 기인한다. 이 피상성은 캐머런과 사르코지의 우파정권이 국익 때문에 다문화주의를 포기하는 것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정책과 톨레랑스의

---

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논리로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 관용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들에는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전유물인 유럽 좌파는 우파의 다문화 정책 포기를 비판하지만 그것이 수사(修辭)로 그친다면 그 피상성을 피할 수 없다. 해결책은 진정성이다.

한국사회에서 국제이주자와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원초적인 것은 그들에 대한 내국인의 편견과 차별이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는 톨레랑스의 가치와 한계를 직시하면서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인간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교육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두 가지 접근을 해야 한다. 하나는 다문화정책과 관용을 최대한 구현해야 함과 다른 하나는 그것이 가지는 한계를 직시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일반은총의 유효성을 인정하되 특별한총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참된 다문화 정책과 관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한 인간이라는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이 되는 믿음으로 다문화 가정과 국제 이주자들이 내국인과 함께 하나 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은 사도바울이 아덴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sup>44)</sup>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 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갈 3:28)라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강조하는 ‘하나의 믿음과 교회 없이는 하나의 세계를 이룰 수 없다’<sup>45)</sup>는 선언 속에 있다. 이 믿음 안에서 다문화 가정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다문화 가정이라는 선교의 땅 끝에서 하나님

44)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내용은 F. F. Bruce 『Paul: Apostle of the Heart Set Free』 Eerdmans, 1989. P. 241. “헬라인들은 야만인들에 비하여 천부적으로 우월하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아덴 사람들은 심지어 다른 지역의 헬라인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고 공통의 조상을 모신 한 혈통이라고 역설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45) “One World is impossible without One God and One Church.” In this truth lies the ever timely message conveyed to man by St. Augustine’s City of God. (City of God. Image Books, Doubleday, New York. 1958 p.35. Quotation from Foreword by Etienne Gilson.)

의 꽃을 피울 수 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 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 참고문헌

### <국내서적>

- 강영안 지음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7.  
김연숙 지음, 『타자 윤리학』 인간사랑, 2002.  
손봉호 『현대정신과 기독교적 지성』성광문화사, 1986.  
한국문화인류학회 지음 『처음만나는 문화인류학』일조각, 2010.  
한상복·이광웅·김광욱지음 『문화인류학 개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황연중, 『그 안에 내가 있었다』 다솜, 2010

### <저널 및 자료집>

- 생명나무 특집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 2011.5.  
국제교육포럼 주관 “다문화가정 교육정책 마련 심포지엄” 자료집 2009.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다문화교육센터 및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연구” 2006.

《동아일보 2011-02-11》

《동아일보 2011-02-09》

《조선일보 2009-11-19》

《중앙일보 2009-11-19》

《중앙일보 2009-11-20》

《조선일보 2008-10-25》

《중앙일보 2009-11-17》

통일교 “평화대사” 월간 2011년 5월2일자: ‘다문화 자녀 미래한국의 희망이다

<번역서>

랄프 윈터, 스티븐 호돈, 한철호 공동편저 정옥배, 변창욱 김동화, 이현모 옮김  
『퍼스펙티브스 1권』 예수 전도단, 2010.

레비 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 안정남 옮김 『야생의 사고 La Pensee Sauvage』  
한길사, 1996.

베르카일(J. Verkuyl), 『현대선교신학』,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1.

시오노 나나미 김숙희역 『로마인 이야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길사, 2002.

앤드류 E. 힐(Andrew E. Hill)·존 H. 월튼(John H. Walton) 공저, 유선명·정종성  
공역 『구약개론』 은성, 1994.

엠마누엘 레비나스저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01.

울리히 벡 (Ulrich Beck) 홍성태 역 『위험사회』 새물결, 1997.

웬디 브라운 『관용-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갈무리, 2010.

존 스톡트(John. R. W. Stott)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아가페 출판사, 1986.

콜린 데이비스지음 김성호 옮김 『엠마누엘 레비니스-타자를 향한 욕망』 다산  
글방, 2001.

폴히버트 지음 김동화·이종도·이현모·정홍오 옮김 『선교와 문화인류학』 조이선  
교회출판부, 1996.

헨리 채드윅 서영일역 『초대교회사』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영문서적>

Blauw, Johannes,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A survey of the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London: Lutterworth, 1963.

Hubbard, Robert L. The Book of Ruth. Grand Rapids: Eerdmans, 1988

F. F. Bruce The Book of The Acts Eerdmans 1981

F. F. Bruce Paul: Apostle of the Heart Set Free Eerdmans, 1989.

St. Augustine, City of God Image Books, Doubleday, New York. 1958

Newsweek 2008년 5월